



“The 10th edition of Italian Design Day: RE-DESIGN. Regenerating Spaces, Objects, Ideas and Relationships”

Masterclass “Life is a Dance” by Michele De Lucchi

The Italian Design Day in Korea is the most important annual event dedicated to Italian Design, in partnership with Korean design. The Italian Design Ambassador for the 2026 edition is **Michele De Lucchi**, one of the leading figures of contemporary Italian design and architecture, founder of AMDL CIRCLE and a key protagonist of the Alchimia and Memphis movements. The Masterclass, titled **“Life is a Dance,”** will explore design as part of a continuous process of transformation, where architecture, spaces, materials and ideas evolve over time. The lecture reflects on regeneration as the ability to recognize value in change, memory and imperfection, proposing a human-centered approach to design that responds to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transformations.

10 March 2026

h 17:00 – 19:00

@ High Street Italia / 69 Garosu-gil, Gangnam-gu, Seoul

Program

Welcome Address

H.E. Emilia Gatto

Ambassador of Italy to the Republic of Korea

Ferdinando Gueli

Italian Trade Commissioner

Masterclass

Michele De Lucchi

*Architect, Designer and Artist
Founder of AMDL CIRCLE studio*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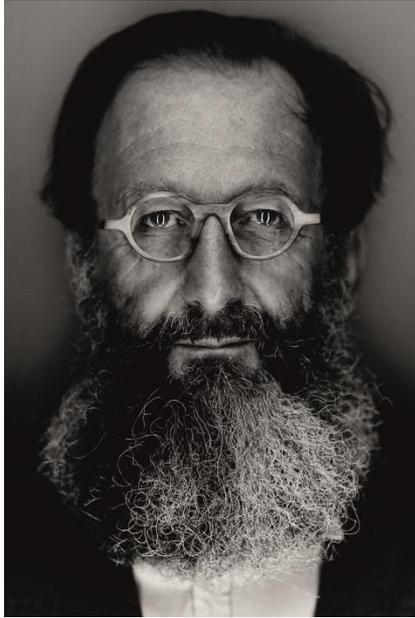
Italian Networking Reception

Kindly RSVP by 5 March

English and Korea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Design Ambassador for Italian Design Day 2026:

MICHELE DE LUCCHI



Architect, designer and artist. — He was one of the key players in Alchimia and Memphis and head of Olivetti Design from 1988 to 2002. He is the designer of the world's best-selling lamp, the Tolomeo by Artemide, awarded the Compasso d'Oro in 1987. He has designed furniture for the most renowned Italian and European companies and has realized architectural projects all over the world in the cultural, business, industrial and residential fields.

In 2000 he received the title of "Ufficiale della Repubblica Italiana" from President Azeglio Ciampi. In 2001 he has been nominated Professor at the IUAV in Venice. In 2006 he received the Honorary Doctorate from Kingston University. In 2008 he has been nominated Professor at the Design Faculty of the Politecnico of Milan and Member of the Accademia Nazionale di San Luca in Rome. In 2018 he was Guest Editor of the magazine "Domus". In 2022 he was honoured with the Compasso d'Oro Career Award. In 2024, he was appointed Academician at the

Accademia delle Arti del Disegno in Florence and Officer of Ordre des Arts et des Lettres by the French Ministry of Culture. In 2025 he was named Asahikawa Special Design Ambassador.

For over twenty years he has drawn, painted and carved objects and models out of wood in his workshops in Milan and Angera, seeking the essential nature of the architectural form, providing a source of inspiration for his professional projects. In 2003 the Centre Georges Pompidou in Paris acquired a substantial number of his works. Selections of his designs can be found in the most important museums i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e is founder and part of the multifaceted studio AMDL CIRCLE, internationally renowned for its humanistic approach. AMDL CIRCLE works across many sectors providing its clients with expressive and strategic projects that embrace architecture, interiors, design and graphics. It carries out ongoing research on the future of architecture and its responsibility in imagining projects that not only acknowledge change but, where possible, inspire it.

Title of the Masterclass: "Life is a dance"

The Zeitgeist of this era invites us to think of design as part of the cycle of life to which we ourselves belong. Architecture and design can no longer be understood as final acts, but as elements of an ongoing transformation, where every space, every material, and every idea continues to evolve over time.

Regeneration is the recognition of value in imperfection, in the traces that time gently leaves behind, and in the possibility of continuous change of form and meaning.

"Life is a Dance" evokes a way of designing that takes into account the evolution of reality,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transformations. It does not seek final forms, but works with time, memory, and happiness.

**“제 10 회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
RE-DESIGN: 공간·사물·생각·관계의 재생”
미켈레 데 루키의 마스터클래스 「Life is a Dance」**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은 한국 디자인과의 협력을 통해 이탈리아 디자인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입니다. 2026 년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 앰버서더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미켈레 데 루키**입니다. 그는 현대 이탈리아 디자인과 건축을 대표하는 인물로 AMDL CIRCLE 의 창립자이자 알키미아, 멤피스와 같은 혁신적인 디자인 그룹의 핵심 주역으로 활동했습니다.

「Life is a Dance」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마스터클래스는 건축과 공간, 재료, 그리고 아이디어가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과정으로서 디자인을 조망합니다. 또한 재생(regeneration)의 개념을 통해 변화와 기억, 그리고 불완전함 속에서 발견되는 가치를 탐구하며,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전환에 대응하는 인간 중심적 디자인 접근을 제시합니다.

2026 년 3 월 10 일 오후 5 시-7 시

@하이스트리트 이탈리아 / 서울시 강남구 가로수길 69

프로그램

환영사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

페르디난도 구엘리

주한 이탈리아 무역공사 관장

마스터클래스

미켈레 데 루키

건축가, 디자이너, 아티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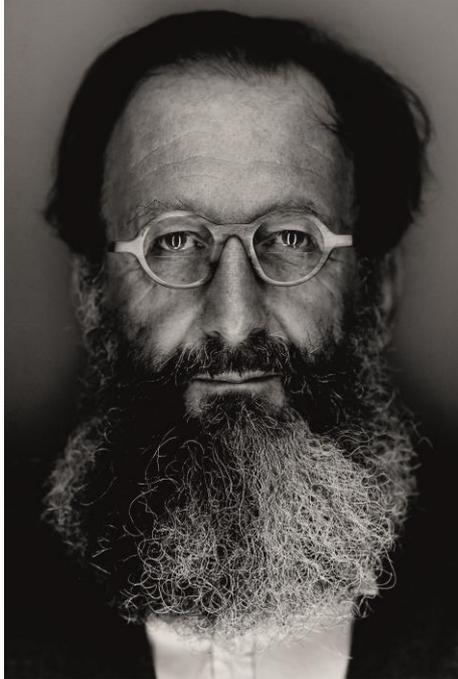
AMDL CIRCLE 스튜디오 창립자

Q&A

이탈리안 네트워킹 리셉션

RSVP 기한: 3 월 5 일

2026 디자인 앰버서더: 미켈레 데 루키



미켈레 데 루키는 이탈리아 아방가르드 디자인 그룹인 알키미아(Alchimia)와 멤피스(Memphis)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으며,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올리베티(Olivetti) 디자인 총괄 책임을 역임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조명 중 하나인 아르테미데(Artemide)사의 '톨로메오(Tolomeo)' 디자이너로, 이 작품으로 1987년 이탈리아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 황금 콤파스를 수상했다. 이탈리아와 유럽의 주요 기업들을 위해 다수의 가구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문화·비즈니스·산업·주거 분야에 걸쳐 세계 각지에서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2000년 카를로 아첼리오 참피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이탈리아 공화국 공로훈장을 수훈했다. 2001년 베네치아 IUAV 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2006년 킹스턴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 밀라노 공과대학교 디자인 학부 교수 및 로마 산 루카 국립미술아카데미회원으로 선임되었다. 2018년에는 건축·디자인 전문지 Domus의 게스트 에디터를 맡았으며, 2022년 황금 콤파스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2024년에는 피렌체 디자인 아카데미

회원으로 임명되었고, 프랑스 문화부로부터 예술문화훈장을 수훈했다. 2025년에는 일본 아사히카와 특별 디자인 앰버서더로 선정되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밀라노와 안제라 작업실에서 목재를 활용한 드로잉, 회화, 조각, 모형 제작 작업을 통해 건축 형태의 본질을 탐구해 왔고, 이는 그의 건축 및 디자인 프로젝트의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2003년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그의 주요 작품을 구입했으며, 이 외에도 유럽, 미국, 일본의 주요 미술관에서도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데 루키는 인간 중심적 접근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스튜디오 AMDL CIRCLE의 창립자이자 일원이다. AMDL CIRCLE 스튜디오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그래픽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표현적이면서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시대적 변화 속에서 건축의 미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AMDL CIRCLE 스튜디오는 단순히 변화를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촉발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 마스터클래스 주제: 「Life is a Dance (생명은 춤이다)」

현대의 시대 정신(Zeitgeist)은 디자인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의 생명 순환 과정의 일부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오늘날 건축과 디자인은 더 이상 완결된 결과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과정의 일부로 인식된다. 공간과 재료, 그리고 아이디어는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간다. 결국, 재생이란 불완전함 속에 담긴 가치, 시간이 남기는 흔적, 그리고 형태와 의미가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행위다.

미켈레 데 루키는 "Life is a Dance"를 통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변화를 고려하는 디자인 방식을 제시한다. 그는 이번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완성된 형태를 추구하기보다, 시간과 기억, 그리고 인간의 행복과 함께 움직이며 만들어지는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